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5호 【루게 제24658호】 주제 103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 10월 8일 공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서 10월 8일 공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1일에 진행되었다.

인민부력부장인 조선인민군 특근대장 현영철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서 일군들, 군인건설자들과 공장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10월 8일 공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신 감사말씀을 현영철동지가 전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로 일떠서 10월 8일 공장을 찾으시어 공장을 우리 나라 산업시설을 담당할 대표할 수 있는 공장, 지식경제시대와 사회

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공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공장으로 전변시키는 데 이바지한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공장건설을 통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이며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고 하시면서 공로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말씀하였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령도업적에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이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군인들과 일군들, 종업원들이 받아안은 당의 믿음과 사랑에 더 큰 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분발할데 대하여 말씀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군관들인 김정남,

최현일, 10월 8일 공장 직장장 박신숙이 결의로문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영광과 가슴에 새기고 혁명적군인정신, 군인본능, 군인기질로 조선속도창조의 불바탕을 세차게 일으키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려이여 창조해나갔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일러 모신 공지를 안고 제품생산의 량과 질을 최대한 높이며 공장의 안팎을 자기 집처럼 알뜰히 거두고 깨끗이 관리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인건설자들과 공장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강조국건설에 참가해 이바지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는 이북

### 남조선 언론론계가 주장

남조선언론계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에 경탄을 표시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력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소식에 초점을 모으며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요인터 네트신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들 640여 장을 모시고 그의 혁명활동관련기사 650여 편을 실었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마시평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를 펼쳐놓으셨다면 올해에는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눈부신 비약을 안아오고 계신다고 격찬하였다.

풍문술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공공공장,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해 현대화와 과학화, 집약화를 강조하시였을뿐 아니라 과학자육양소건설장,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비롯한 건설장들도 찾으시고 새로운 비약의 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KBS》방송은 《북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해 조선속도라는 새로운 네트신문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들 640여 장을 모시고 그의 혁명활동관련기사 650여 편을 실었다.》고 하면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이룩해가고있는 공화국의 자랑한 현실에 대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통일뉴스》 등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 차례 건넌 경기용총관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돌아보신데 대해 주목하면서 우는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를 펼쳐놓으셨다면 올해에는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눈부신 비약을 안아오고 계신다고 격찬하였다.》, 《북이 주민들이 즐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 문화시설건설에 집중하고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양시설건설로 사회주의 문명 국가의 체모를

갖추어나가고있는 이북》이라고 평하였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김정은원수 평양시민들과 축구경기 관람》, 《김정은시대 북에 스포츠 열풍》 등의 제목아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체육선수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전문선수단의 훈련과 대중체육경기들을 자주 보아주시셨을뿐 아니라 평양에서 진행된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 및 구락부경기선수권대회도 보아주시는 등 체육관련공개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김정은제1위인장의 체육현장방문은 체육을 통해 주체체육을 강화하고 국제대회에서는 국가의 명성을 떨치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려는 의도》, 《체육을 통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집단주의를 배양시키려 하고있다.》고 평하면서 이 북사회에 체육열풍이 일어나고 금메달도 늘어나고있다고 언론들은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의 원동력으로 보시고 그의 발전에 불멸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흠모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에서 특장적인것은 과학기술발전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제1위인장께서 내세우시는 대표적인 분야가 과학기술이다.》, 《북이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북의 과학중시정책에 따라 과학자는 북청소년들이 가장 신망하는 직업으로 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보수언론들까지도 《이북 전사회에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게 된것은 김정은제1위인장의 혁명적인 현지지도때문일것이다.》고 하였다.

언론계를 휩쓰는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열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라는 남평계의 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

#### 평안남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펼쳐나신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일떠마다에서 자랑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도당위원회와 해당 성들의 지도부에 도안의 농업부문에 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전력, 석탄, 화학,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매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전진회의와 부문별회의를 열고 인민경제의 주요단위들에서 년초에 세웠던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이와 함께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모두가 혁명의 지휘성

원, 인민의 총부로서 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도록 하고있다.

도안의 농촌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조성시기 일군들처럼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앞장에서 혁신의 불길들을 계속 세차게 지퍼올리도록 하는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으면서 령령을 집중하여 중요대상공사들을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 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서해곡창지대를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농작물 수확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령령을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순천시, 양덕군, 북창군, 문덕군, 증산군, 안주시를 비롯한 시,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은 거름더미이자 썰미더미라는것을 길이 자각하고 거름생산을 다그치면서 가을이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콜레라전염을 힘있게 별려산과 강변을 비롯한 풀원천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많은 풀을 베어들이며 거름더미를 높이 쌓은 도의 농업근로자들은 신선드높이 가을이준비에 떨쳐나섰다.

도안의 석탄, 전력, 화학, 기계공업부문들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은 평안남도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이라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탄광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쳐 석탄중산의 불길들을 세차게 지퍼올리도록 하고있다.

순천, 덕천, 개천, 북창, 득장지구의 탄광들에서는 굴진 작업을 확고히 앞세워 유망한 새 탄밭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석탄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 있다. 모든 탄광연합기업소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기세좋게 내달리고 있다.

특히 남양탄광, 자강도공급탄광, 개천탄광, 무진대청년탄광 등에서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힘있게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들에 나가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협의회를 자주 조직하여 전력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전소들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고있다.

남창정제화학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농업업소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시비전도 화학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이어 이달에도 생산을 다그치면서 설비보수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양제염소, 은정제염소에서 이달조건에 맞게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계획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생산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 이동식벼탈곡기생산 적극 추진

#### 황해남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에 현대적인 여러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것과 함께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이준투를 앞두고 농촌농민을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현재 도에서 생산하고있는 이동식벼탈곡기는 벼탈곡은 물론 정선까지 동시에 하게 될 능률적인 농기계가이다.

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동식벼탈곡기를 제기일내에 생산하여 가을이준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하였다. 특히 도에서는 강제와 목제를 비롯한 필요한 자재를 앞세워 보장하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계획된대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도안의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 협동농장 기계제작반과 수리분조를 비롯한 농기계생산단위와 수리기구들이 이 동식벼탈곡기생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그 일정에 배천군이 섰다. 배천군에서는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 동식벼탈곡기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할수 있게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부를 조직한데 이어 제관공, 용접공, 선반공 등 기술자, 기술공들로 강력한 기술력량을 무어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군의 책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지원사업에 고무된 생산자들은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40여대의 이 동식벼탈곡기를 질적으로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천, 제명, 대련, 송화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군들에서도 자체를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에 앞세워 보장해주고 노력과 기술력량을 동원하여 계획된 이 동식벼탈곡기생산을 마감고 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이 아닌 협동농장 기계제작반과 수리분조들에서도 이 동식벼탈곡기생산을 힘있게 벌려 벼탈곡기를 개조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힘을 넣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가을이준비가 착실하게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산보장하기 위해 농기계생산단위들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조경보장을 해두도록 하는것과 함께 협동농장들에서도 지방자재를 적극 리용하여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다그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대성협동농장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 농장에서는 오랜 기술공들과 자체의 튼튼한 수리기구에 의거하여 이동식벼탈곡기를 생산하도록 작전을 잘해나가고 있다. 가을이준에서 탈곡기생산을 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농장의 기술공들은 창조적체와 힘을 합쳐 계획된 이동식벼탈곡기를 제기일내에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월현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 기계제작반과 수리분조들에서도 지역자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새로운 농촌농민을 이 동식벼탈곡기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그 결과 이 동식벼탈곡기생산을 힘있게 벌려 벼탈곡기를 개조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힘을 넣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가을이준비가 착실하게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공정과 유리섬유 및 수지액생산공정, 조액공정을 현대화하고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풀기 위한

단천제련소에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제 98(2009)년 6월 물소 단천제련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술을 꿰입없이 혁신하여 생산장정의 확고한 물과자를 열어놓은 단천제련소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새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제련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제련소현대화를 위한 높은 방법론을 찾아내고 기술발전사업을 통해 크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단천지구당위원장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제련소당위원회에서는 당의 기술혁명명령을 철저히 관철하여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리상수, 박춘선동무를 비롯한 제련소의 일군들은 기술발전을 위한 전망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기술자, 노동자

들의 시야를 넓혀주는것과 함께 그들의 기술능수준을 높여주는 데 힘을 넣고있다.

기사장 김성태동무를 비롯한 참모부의 일군들은 자동화장치, 자동작업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현판단위 과학자들의 긴밀한 연계밑에 여러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현행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자동화장치와 보수작업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유리섬유 및 수지액생산공정조정에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전체공정에 실정에 맞는 주파수변환기를 설치하여 생산정상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 조액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한몫하였다.

공업시험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전해액중농분농도도 낮출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유색금속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제련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휘하여 유가금속을 모조리 회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 풍력을 리용하여 양수도 한다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수도 시간당 평균 3m<sup>3</sup>를 퍼올린다고 한다.

또한 전기선,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뿔조작업을 위한 전동기와 전기식펌프를 쓰지 않고 양수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물원천이 없는 어디서나 전력을 쓰지 않고도 방목공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고 집집마다, 먹이풀비판리에 필요한 물은 물론 관개용수도 정상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중앙현지취부에서는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격대의 적극적인 연계밑에 바람이 잦은 기상기후조건을 리용하여 새로 건설된 축산기지들

수도 시간당 평균 3m<sup>3</sup>를 퍼올린다고 한다.

또한 전기선,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뿔조작업을 위한 전동기와 전기식펌프를 쓰지 않고 양수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물원천이 없는 어디서나 전력을 쓰지 않고도 방목공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고 집집마다, 먹이풀비판리에 필요한 물은 물론 관개용수도 정상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중앙현지취부에서는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격대의 적극적인 연계밑에 바람이 잦은 기상기후조건을 리용하여 새로 건설된 축산기지들

산기지의 곳곳에서 리용할 목포일에 한사갈같이 펼쳐나갔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설계를 완성하고 설비제작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해당 기업소에 나가 그곳 로동계급과 함께 창조적지혜와 애국적정열을 발휘해가며 짧은 기간에 풍력양수기들을 만들고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성공적인 첫 시운전에서 신심을 가진 과학자, 기술자들 격대원들은 그 기계를 늦추지 않고 더 많은 풍력양수기들을 제작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지금 풍력양수기를 설치한 지구들에서는 자연흐름식으로 살필것과 집집수리마다 수도공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수십개 지구들에서는 풍력양수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수찾기가 진행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완공의 그날을 향하여 앞으로!

위 성 과 학 자 거 리 건 설 장 에 서

## 당에서 바라는 높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천이다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그 어느 일터에 가나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가 더 높이 울려 오고 있다.

지난 6월 준공 건설장을 찾으며 모든 살림집들을 백만장자리로 완성하며 부업발과 온실도 새로 꾸러줄대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모습은 원수님,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바치는 그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앞장에서 받아들이는 시공단원들속에는 대의건설지도국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서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조선의 강성부흥과 인민의 행복찬 미래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있는 척후대, 개척자들입니다.》

지도국의 일군들을 만나 마감 시공에서 제일 모범적인 단위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11호동 살림집건설을 맡은 평안대의건설자양건설소장을 꼽는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사업소 지배인 김철수동무는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집 한채 한채가 다 우리당이 금방삭에 앉힐 과학자들이 살 집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세대별마감공사가 한창이던

###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지난 8월 초였다. 부두막쌓기 작업을 진행하던 9직장 로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울려 오고 있는 크기에 관한 문제였다. 설계의 요구대로 하면 된다는 사람, 자기 집 실례를 들어가며 좀 작거나 크게 하자는 사람...

가마의 밀구역을 알아야 그에 맞게 탄가스방직력도 만들고 부두막을 땀시있게 완성할수 있다는 데로부터 생긴 의견들이었다. 직장의 지체총화모임에 문제가 일어 올랐다.

일부 작업반장들은 아무래도 일사한 세대들이 자기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히 의견을 밀박은 직장장 리영진동무가 잠시 생각을 잠깐하고 말을 이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 에서 완공의 날을 앞당겨 가는

사업소 로동자들의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게 하는 이야기였다.

이 사업소 아니 지도국의 모든 건설자들의 주인된 자각을 높여준 계기가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그날 저녁 현지에서 내려온 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인 김강진, 김중원동무들은 신제일, 리승철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일군들과 함께 그이께서 다녀가신 로장을 하나하나 돌아다녔다.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 이라는 주인다운 림장에 올 때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 올라설수 있다는것을 모두가 자각하게 한 협의회였다.

이것을 계기로 건설자들은 물론 지도국의 모든 종업원들이 살림집완공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분발해나섰다.

여러 사업소의 수많은 로동자들이 마감시공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들을 자재로 마련하여 장식미장 하나하나를 완성해나갔으며 직장에서 내내 부두막을 탐구하여 만든 은백색칠까지 한 완공을 위한 자재들을 부두막에 놓아주는것으로 세대별마감시공의 테크를 끝까지 지켜왔다.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 말이다. 하지만 바로 그 다섯

자에도 과학자들에게 돌려주는 우리 당의 사랑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 바친 지도국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남다른 수고와 함축되어있다.

이것을 계기로 건설자들은 물론 지도국의 모든 종업원들이 살림집완공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분발해나섰다.

여러 사업소의 수많은 로동자들이 마감시공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들을 자재로 마련하여 장식미장 하나하나를 완성해나갔으며 직장에서 내내 부두막을 탐구하여 만든 은백색칠까지 한 완공을 위한 자재들을 부두막에 놓아주는것으로 세대별마감시공의 테크를 끝까지 지켜왔다.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 한 단아는 기쁨이론 사람 병사들

### 조선인민군 한성일소속부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쁨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대별마감시공에 들어가면서 2호동 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한성일소속부대 지휘관들에게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다. 그것은 골조 라이미라든가 벽체미장하는 달리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는 천정테두리장식, 문물장식을 비롯한 마감시공을 건설경험이 부족한 부대군인들이 해내겠다는 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사실적인 눈에 띄게 올라간것을 알게 되었다.

《조국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쁨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대별마감시공에 들어가면서 2호동 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한성일소속부대 지휘관들에게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다. 그것은 골조 라이미라든가 벽체미장하는 달리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는 천정테두리장식, 문물장식을 비롯한 마감시공을 건설경험이 부족한 부대군인들이 해내겠다는 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난 후 부대의 일군들은 이 8개의 기능공력량이 한채 층의 한채 대씩 타고있어 살림집현장에 나가 실례를 알아보았다.

《조국명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쁨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재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대별마감시공에 들어가면서 2호동 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한성일소속부대 지휘관들에게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다. 그것은 골조 라이미라든가 벽체미장하는 달리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는 천정테두리장식, 문물장식을 비롯한 마감시공을 건설경험이 부족한 부대군인들이 해내겠다는 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 가을남새발풍경

은경 과학지구에 일떠서고 있는 여기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 새로운 풍치가 펼쳐지고 있다.

풍색과 감색, 흰색의 타일들을 조화롭게 붙인 살림집과 봉사관들, 여러가지 색부너로 특색있게 단장되는 유치원과 탁아소, 소학교와 초급중학교건설장 사이사이에서 자라나는 부업밭에서 푸르싱싱 가을 담배들이 키돋움하며 자라고 있다.

한창 건설중인 주택지구에 펼쳐진 이채로운 남새작황을 보며 지금 건설자들은 물론 오가는 사람들은 우리 과학자들에게 돌려주는 어머니당의 사랑에 대하여 하많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지난 6월 준공 이터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주택지구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들사이에서 부업밭과 온실을 잘

꾸러주면 과학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에 새긴 현장지휘부와 각 시공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마감건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는 동시에 부업밭꾸러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건설장의 전반적인 특색, 공원조성실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본데 기초하여 살림집들사이의 20여개소에 대한 부업밭조성계획을 세웠으며 여러 계기를 통하여 그 조성에 나서시는 기술적요구들을 알려주는 사업을 심화시켜나 갔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의 기상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10여개소에서 2만 2천㎡의 토량을 퍼내고 메우과 부식토를 기술구성의 요구대로 다져 말려진 부업밭조성을 끝내 주었다.

수도건설위원회, 대외건설지도국, 속도전청년동맹대지도국의 건설자들도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 km 떨어진 여러곳에서 메움을

나르고 질 좋은 부식토를 마련 하였다.

그러하여 짧은 기간에 건설장 곳곳에 부업밭들이 조성되고 지대정리도 끝나게 되었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지난 8월 초에 모든 부업밭에서 배추, 무우모심기작업이 일제히 진행되었다.

지금 각 시공단위에서는 일정한 리량을 고정하여 부업밭 배판리를 주된담배 해나가도록 하면서 무리위와 가을이 지속되어 는데 맞게 아침저녁으로 건설력량을 총동원하여 물구나무작업을 정상화하고있다.

현장지휘부 해당 일군의 말에 의하면 건설장에 조성된 부업밭의 총면적은 3만㎡이상에 달한다. 앞으로 이곳에 임사하는 과학자세대당 평균 20㎡이상의 부업밭이 차례지게 된다고 한다.

현재 모든 부업밭들의 남새작황은 그 주변의 협동농장들의 남새작황에 비하여 훨씬 좋다. 주인다운 림장에서 기름주머니, 비료주머니를 비롯한 비배판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한 대외건설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시공단위들의 부업밭은 그 작황이 남달리 좋아 온 건설장에 소문을 내 고있다.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당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전하게 할지 하는 이 살림집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시공하자는 구분대장의 절절한 호소는 지휘관들을 각성시켰다. 사관인 김영철, 김철중동무들과 병사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 위훈의 구슬땀은 행복창조의 밑거름

### 조선인민내무군 김동철소속부대에서

김철중동무를 비롯한 군인대중이 앞선 시공방법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섰다.

다음날부터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인조석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 일정한 비를로 인조석을 섞은 혼합물을 이겨 미장하는 작업, 인조석미장면우에 알맞이 고른 인조석을 뿌리고 다지는 작업... 기존공법에 비하여 몇갈절 힘이 드는 하나하나의 공정마다에서 구분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창조적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나갔다.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리용하는 가마규격에 따라 부두막을 수정했었는데 설계대로 내밀고 하겠다.》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넘겨준 집에서는 그 어떤 세시공도 있을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새 가마를 놓아 줍시다. 제일 좋은것으로 말입니다.》

직장장의 제에 반장들이 흥분해나섰다. 다음날 직장장이 맡은 모든 세대들에 놓아줄 변형이 새 가마들이 마련되었고 그에 맞추어 부두막은 완성 되었다.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건설자의 림장에서 아니라 바로 그 집에서 살 주인된 림장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발휘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도 군민협동작전으로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하며 건설하고 도시, 군민을 해방 시하는 특색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합니다.》

당 앞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함경남도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를 편이 일떠세우고있다. 얼마전 마천유원지개건공사장에서 우리와 단단 지회 부일군인 함경남도인민위원회 부국장 김동철동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모래와 자갈, 돌을 보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을 잘 할 수 있으면 인민군인들과 함흥시안의 각 구역 근로자들, 가두녀성들은 주변의 가까운 하천에서 채취하여 공사장까지 운반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리하여 많은 연유행복을 위한 창조를 편이 일떠세우고있다.

500석창양용로점건설을 맡은 인민군인들과 홍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기발한 착상과 완강한 공격전, 립체전을 이끌어 단 두달동안에 이 공사를 훌륭히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과 공크리치기작업을 짧은 시간에 성과적으로 해제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함흥철도국과 도립업관리국, 도도시설계연구소,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함흥강철공장, 부대산세멘트공장, 함흥세멘트공장은 물론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련관단위들에서 군민협동작전에 호응하여 자재와 설비, 장치물산보장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인민군인들과 도안의 건설자들의 가슴속에는 지난해 5월말 선군혁명명도로 그려 렬 바쁘신 가운데서도 몹소 마천해수욕장을 찾아주시고 근로자들이 즐겨찾는 해수욕장을 세 세계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려주시고 하신다. 이렇듯 인민군인들과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투쟁에 떨쳐나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향해남도 해주시의 풍치수려한 광천정수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립체물동영화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새로 일떠서는 블동영화관에는 4개의 블동영화관람실과 영사실 그리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전자오락실과 립체무대공연실, 전자사격장과 블동오락실, 사정실상과 청량음료매대 등이 갖추어져 있다.

함흥시안의 각급 기관, 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인민군인들의 투쟁정신, 창조기풍을 본받아 공민건설을 하우빨리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성천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규모가 큰 여러개의 대상건설을 도맡아 인민군인들과 어깨걸고 공사를 본때있게 다그쳤다. 흥남구역과 사포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민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로라스케트장과 분수터, 화대물 등을 새로 꾸려가고 마음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공민대단결의 위력은 함경남도 곳곳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에 뜨겁게 여겨졌다. -군민협동작전! 함으로 크나큰 힘과 믿음, 창조의 희열이 융숙음치는 시대이다. 인민군인들과 도안의 건설자들이 이 시대를 가슴까지 새겨들고자 지금 마천유원지개건공사 2단계과제를 앞장서 끝내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적극 지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풀만조성과 대상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많이 발휘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원 김원호는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자원하여 달려나가 노력적 위훈을 떨치면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하여 축산기지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으며 편지전정진속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물려대원들에게 보내주며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시었다.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모란봉구역의 봉사사업소 노동자 리관영도 있다. 지난 기간 전쟁로병들과 주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잘해온 그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전승혁명사적관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망심들을 아낌없이 바치었으며 청천강계단식물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가 일을 하면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젊은 순간들을 순결한 망심으로 수놓아온 그는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그는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자원하여 달려나가 노력적 위훈을 떨치면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하여 축산기지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으며 편지전정진속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물려대원들에게 보내주며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시었다.

모양지도국 아베단위 노동자 리미화, 평양시인민위원회 아베단위 노동자 김영옥, 평천구역공업품종합사업소 노동자 박영옥, 모란봉구역공업품종합사업소 노동자 김영선, 통성세멘트공장 노동자 송훈식, 안주시 팔프회수공장 노동자 황형실, 은산군상업리소 노동자 김화경, 신의주시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조은별, 배천군인민위원회의 노동자 홍선명, 황해북도위생방역소 의사 유용진, 개성시인민위원회 노동자 리은하, 선군군민위협성소 부원 장옥명, 김책시 한천동 4인민반 부장 김연옥, 경흥군협의봉사위원회 노동자 리영호, 함흥시 흥덕구역인민위원회 송금주, 장진구역도화정보호반리부 노동자 방명철, 흥원군사회적양광리소 노동자 진순희, 강선군속진문화교 교원 김명금, 남포시 와우도구역 동흥동 3인민반 부장 김경희, 남포시법학대 노동자 채광목, 라선목련평명보급소 부원 김순실, 라선시 수계봉수산사업소 리향환, 라선시인민위원회 아베단위 노동자 박철웅이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적극 도와나섰다.

방대한 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게 일으켜야 합니다.》

어평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방대한 체육경기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치게 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에서는 체육경기장을 훌륭하게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10여만㎡의 도량을 성토하고 3천㎡의 잔디밭을 조성하며 3천㎡의 외벽을 쌓아야 하는 체육경기장개건공사는 중전결집으로 몇달은 실히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다.

어평군에서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방대한 체육경기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치게 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에서는 체육경기장을 훌륭하게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10여만㎡의 도량을 성토하고 3천㎡의 잔디밭을 조성하며 3천㎡의 외벽을 쌓아야 하는 체육경기장개건공사는 중전결집으로 몇달은 실히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다.

하지만 군의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방대한 체육경기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치게 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에서는 체육경기장을 훌륭하게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10여만㎡의 도량을 성토하고 3천㎡의 잔디밭을 조성하며 3천㎡의 외벽을 쌓아야 하는 체육경기장개건공사는 중전결집으로 몇달은 실히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다.

어평군에서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방대한 체육경기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치게 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에서는 체육경기장을 훌륭하게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10여만㎡의 도량을 성토하고 3천㎡의 잔디밭을 조성하며 3천㎡의 외벽을 쌓아야 하는 체육경기장개건공사는 중전결집으로 몇달은 실히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다.

하지만 군의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방대한 체육경기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치게 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빛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에서는 체육경기장을 훌륭하게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10여만㎡의 도량을 성토하고 3천㎡의 잔디밭을 조성하며 3천㎡의 외벽을 쌓아야 하는 체육경기장개건공사는 중전결집으로 몇달은 실히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에서 요구성의 기준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입니다.》

향해남도 해주시의 풍치수려한 광천정수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립체물동영화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새로 일떠서는 블동영화관에는 4개의 블동영화관람실과 영사실 그리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전자오락실과 립체무대공연실, 전자사격장과 블동오락실, 사정실상과 청량음료매대 등이 갖추어져 있다.

공민대단결의 위력은 함경남도 곳곳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에 뜨겁게 여겨졌다. -군민협동작전! 함으로 크나큰 힘과 믿음, 창조의 희열이 융숙음치는 시대이다. 인민군인들과 도안의 건설자들이 이 시대를 가슴까지 새겨들고자 지금 마천유원지개건공사 2단계과제를 앞장서 끝내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풀만조성과 대상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많이 발휘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원 김원호는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자원하여 달려나가 노력적 위훈을 떨치면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하여 축산기지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으며 편지전정진속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물려대원들에게 보내주며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시었다.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모란봉구역의 봉사사업소 노동자 리관영도 있다. 지난 기간 전쟁로병들과 주민들에 대한 봉사사업을 잘해온 그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전승혁명사적관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망심들을 아낌없이 바치었으며 청천강계단식물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가 일을 하면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젊은 순간들을 순결한 망심으로 수놓아온 그는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그는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자원하여 달려나가 노력적 위훈을 떨치면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하여 축산기지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으며 편지전정진속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물려대원들에게 보내주며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시었다.

모양지도국 아베단위 노동자 리미화, 평양시인민위원회 아베단위 노동자 김영옥, 평천구역공업품종합사업소 노동자 박영옥, 모란봉구역공업품종합사업소 노동자 김영선, 통성세멘트공장 노동자 송훈식, 안주시 팔프회수공장 노동자 황형실, 은산군상업리소 노동자 김화경, 신의주시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조은별, 배천군인민위원회의 노동자 홍선명, 황해북도위생방역소 의사 유용진, 개성시인민위원회 노동자 리은하, 선군군민위협성소 부원 장옥명, 김책시 한천동 4인민반 부장 김연옥, 경흥군협의봉사위원회 노동자 리영호, 함흥시 흥덕구역인민위원회 송금주, 장진구역도화정보호반리부 노동자 방명철, 흥원군사회적양광리소 노동자 진순희, 강선군속진문화교 교원 김명금, 남포시 와우도구역 동흥동 3인민반 부장 김경희, 남포시법학대 노동자 채광목, 라선목련평명보급소 부원 김순실, 라선시 수계봉수산사업소 리향환, 라선시인민위원회 아베단위 노동자 박철웅이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적극 도와나섰다.

단전이 자랑하는 청년대학생들

《과파대학 청년대학생들을 널리 소개해주시고...》

이것은 얼마전 천성청년단평을 찾은 우리에게 탄광일군이 한 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과파대학 화학생 5학년 학생들이 몇해째 방학 때마다 탄광을 찾아와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계승자이며 민족의 주인입니다.》

지난 1월 방학을 리용하여 고산시 탄광에 도착한 송철부, 김대식, 리현철, 조남혁동무들 비롯한 대학생들은 배낭을 풀이

노력하였다. 방학기간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생들은 편지를 통하여 석탄증진을 위해 자기들의 사색과 지혜를 합친 기발한 착상과 좋은 의견들을 천성의 탄부들에게 전하였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대학생들은 탄광을 찾았다.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탄광을 찾은 이들을 맞이한 탄부들 모두들 습치 않은 청년들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탄부들을 중심으로 도와 석탄생산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어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고무추동하였다.

탄부들을 중심으로 도와 석탄생산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어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고무추동하였다.

탄부들을 중심으로 도와 석탄생산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어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고무추동하였다.

탄부들을 중심으로 도와 석탄생산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어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고무추동하였다.

탄부들을 중심으로 도와 석탄생산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어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고무추동하였다.

탄부들을 중심으로 도와 석탄생산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어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고무추동하였다.

탄부들을 중심으로 도와 석탄생산전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대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어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고무추동하였다.

어머니의 진정

어머니의 진정... 어머니의 진정... 어머니의 진정...

# 승고한 동지애의 력사, 사랑의 세계

동지애의 위대한 력사를 아로새기며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용케도 그리던 파사로운 태양의 품, 어머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주재 89 (2000)년 9월 2일,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14년이 되었다.

10여년세월 위대한 사랑을 짓글거려 하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행복 한 삶을 누리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아 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은 이 아침 동지애의 화신인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한의 경모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감개 드리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피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이고 어머니 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량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옥행의 길에 오대기던 그들이 꽃수레를 타고 락원천에서 그들의 고향을 바꾸고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되고있는 것은 정녕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지금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 고향이다. 하지만 모두가 생가에 넘쳐났다. 무슨 힘이 솟는지 화선에 불과하던 이들을 삶의 향기가 한껏 풍기는 청춘기로 되돌려놓았는가.

전설적인 기적을 현실로 목격하면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 고결한 의리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생각하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신념, 통일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리로써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손발을 얹어맨 철학과 높디높은 감옥의 담벽은 그들의 생사여부에 대한 소식조차 끊어버렸고 대문을 열어놓고 돌아

올 사람을 애려해 기다리던 가족들도 살아 만날 생각을 오래전에 단념해버리게 했다. 하지만 망각속에 묻힌 전사들을 잊지 못하시며 잠 못 이루시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시분은 바로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지금도 우리 인민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가슴아픈 소식을 들으시고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의 구절 구절을...

...전사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욱더 생동하게 새겨져가 있다. 그래서 나는 34년 동안이나 남조선의 철창속에서 고생하던 리인도 남지 않는 것을 잊지 않고 지난해에 기어오 려왔다. 이렇게 하는것이 전사들에 대한 참된 영도자의 의리이고 의무라고 생각되고있다. 우리 당이 있는 한 남조선에서 고봉받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땅의 품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

혁명승리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심정이였다.

통일애국투사들을 당의 품으로 데려 오기 위해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것만 해도 무려 수십차, 1994년 3월 24일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오기 위한 비상실기구인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를 조직, 비전향장기수문제가 20세기 최대의 인권 문제, 인도의적분과 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한 국가적인 규모에 서의 강령한 조치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기울여오신 그 어떤 말로도 글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로고와 심혈의 귀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기 며칠전인 주재 89 (2000)년 8월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득 화제를 비전향장기수문제로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감옥에서 수십년동안이나 용감하게 투쟁한 그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고 참으로 고귀한 칭호로 불러주 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이제 조국의 품에 안기면 조국통일상도 수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도, 새 당원증도 안겨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꾼들은 가슴이 트여우름을 글썽 흘렸다. 혁명전사들의 삶과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것이 자신의 본분으로, 행복도 여기 사는 어버이장군님, 어느 시대에 이런 영도자, 위인이 있었는가. 그의 말씀을 새겨안는 일꾼들은 걱정을 금치 못했다.

그 열화같은 사랑과 의리에 떠받들려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주재 89 (2000)년 9월 2일 용케도 안기고싶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조국으로 돌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을 파사로운 사랑의 한포에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신 은정과 배려를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고있는 것인가.

생년월일을 헤치시며 되고 힘든 철행을 다녀오신 그분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생활을 로해하시고 수십가지 보약과 지팡이까지 마련해주시기 가슴뜨거운 사랑, 회기만 고기도 그들의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해주시고 민속명절날이던 민족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셨고 목까지 보내주시던 다심한 사랑, 삼복될 이번 몸보신에 좋다는 당고기도 대접 하시고 그 눈으로 거울이 된 할머니와 솥웃, 털신과 털모자까지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 조국에서 생일을 맞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시

신근형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어머님의 보살핌... 친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가지 못할 어버이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귀중한 보약, 사랑의 불사약이 되어 그들은 잃어버린 청춘과 행복을 모두 되찾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자로 만복을 누리고있는것이다.

어찌 이뿐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감옥에서 얻은 병환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비전향장기수들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어 그들이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해주 시였다. 정녕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한없이 뜨거운 은정이였다. 오늘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목이 매어 울고웃던 잊지 못할 날에 대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은 격정에 넘쳐 흐느끼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마를줄 모르는 삶의 생수양, 사랑의 젖줄기였다.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승고한 동지애의 력사, 사랑의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분을 그대로 이어 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계속 이어지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그날을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컸을 때를 잊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그 급이 죽을 때만 식료품들을 가슴까지 안겨주시고 자신께서는 삼복될 그 날부터 남 편이든 전신사실의 길에 계시면서 그 그들의 건강을 위해 휴양길과 료양길, 동태승용 송도원과 천하일승 금강산에로의 탐승길을 마련해주 시였다. 볼보라도 뜨거운 동지애의 사랑, 한량없는 은정은 기나긴 옥중투쟁의 나날 원수들의 모진 고문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역센 사나이들의 눈물을 려지게 했다. 신근형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생활을 맛을 매던 잊지 않으시는 것이 영원한 생일상을 보내주신다. 언젠가 통일애국투사들을 생각하시는 그의 크나큰 사랑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60돐 경축행사에도 대표로 참가하고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건까지 찍는 최상최대의 특권을 누리였다.

오늘 비전향장기수들이 고향에도 조선작동명 망원으로 창작활동을 정열에 넘쳐 버리고 사회진보회, 국가미술 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계급들에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업에 헌신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 사랑대로 통일애국투사들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고 삶을 빛내여주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대를 두고 이어지는 수령과 전사들의 사랑과 총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세계는 일찌기 알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정녕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동지애의 력사, 인민의 사랑과 총정에 대한 전설같은 대원수님들과 그분들의 고매한 친분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채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자랑스런 희곡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름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영광중의 영광이고 행운중의 최대의 행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김정은원수님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가슴을 울리고있다. 그러나 그이의 승고한 애국의 뜻을 따라 자주 통일과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투쟁

남조선의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중층의 참가하에 8월 23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 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세월》호특별법에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청외대가 응답해나서지 않고있다고 비판하였다.

야당대표가 《세월》호참사진상규명문제를 관하여 여당과 집권자를 설득시킬 대신 유가족과 민중을 리해시키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유가족들만이 아니라 민중 모두의 요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로동자, 청년학생,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 확대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이 집권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

파업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인 승철은 민중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투쟁의 목적은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참사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민주로총 대표들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통성장을 찾아 그들을 격 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8월 28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종



파업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인 승철은 민중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투쟁의 목적은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참사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민주로총 대표들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통성장을 찾아 그들을 격 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8월 28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종

##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는 망동

얼마전 남조선을 행한 미국방성 부장 로버트 위크가 판에 박은 미국의 《위협》설을 운운하였다. 그는 우리의 《도발》가능성이 크다는, 자들이 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무시하고있다는니 우선 하는 제반을 늘어놓았다. 이어 그는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와 남조선형미사일방위체계의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다. 《는 소리 를 하였다. 그야말로 과편지한 수작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협한다 말인가, 미국의 주장은 흑백을 전도하는 강도의 소리이다.

미사일방위체계 도입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균형을 파괴하고 제약을 초래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피방국을 비난하고있다. 주변나라들도 남조선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에 가담하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초래된다고 하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바빠난 남조선피도들은 저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에 가입한다는것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과 그 어떤 협의도 한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에는 단처한 처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피도들에게 입김을 불어넣는것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과 명분이 필요하였다. 바로 그래서 고안해낸것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설이다. 미국은 과편지하게도 우리의 잊지도 않는 《미사일위협》을 걸고들면서 어떻게 하나 남조선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끌어 들이고 엄청난 재정적부담을 걸머지우기 위하여 과편지하고 비협박한 술책이다.

미사일방위체계에 끌어들이려는 강도의 망동에 대해 북한에서는 자들이 조여 주는것은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왔다고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왔다고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왔다고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왔다고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왔다. 《서면》호는 8월 22일 투루섬에까지 침입하여 침략선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8월 27일 침략무리들은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평양민중의 중군인 반 백을 붙이려다 실패하여 그를 랍치해가 는 로물적인 적대행위를 강행하였다. 우리측이 중군의 선방을 선행하였다. 침략무리들은 패배하게도 쌀 1000석과 다량의 금, 은, 인삼 등을 내놓으며 중군을 선방하겠다고 떠벌었다. 침략자들은 대포와 총을 쏘면서 악강 도에게서 기어올랐다. 8월 31일 《서면》호 침략자들은 대포와 총을 계속 계속이대 면서 조선사람들을 학살하는 만

원래 굳이 위협에 대해 말한다던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고 소리이다. 술한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배치해놓고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기도 로물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는 항시적으로 전쟁위협이 떠돌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객관적현실을 외면하면서 고의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있다. 속심은 떼어지지 않다.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기상설화하여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는것이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남조선에 미사일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피도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굴복하여 남조선피도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구성에 핵심요소로 되고있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얼마전에는 미군부가 직접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남조선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지조 사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 자 남조선은 물론 주변나라들에서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전문가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일국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저들의 음흉한 지배주의적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는 가짜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지배주의적 정책 비판 그는 이전 쓰레인지 블리펀 편 대중보도수단들에 대한 지 후 미국은 일국체계를 구축을 꿈 배를 강화하여왔다고 폭로하 무면서 군사력을 확대하는 한

미국이 일국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저들의 음흉한 지배주의적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는 가짜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일국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저들의 음흉한 지배주의적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는 가짜했다. 【조선중앙통신】

## 오합지졸의 무리, 《죽음의 상징》

드러났다. 사병들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구타하고 포로로 리책임을 있는자들은 모두 엄 격히 처벌을 주도록 해마다 벌어 지는 생추행까지 하는 등극한 괴수들이 일어난다고는 각종 투쟁사건들을 다 접자 면 끝이없다. 싸움대로 썩은 괴수의 이런 실태가 날마다 드러내면서 남조선 각계는 걱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는 괴수들을 비롯하여 각종 투쟁사건에서는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의 책임을 구리와 가혹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축수, 은폐하는 괴수군부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호전적투쟁과 부실한 판리로 폭행과 무력투쟁은 주장 시키 괴수군부 장관인인연현 현 청와대보실장 김관진영도 를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세 정지민주련합 대변인 은 28사단은 전체 민중의 《관심사단》이 되었다고 개탄하

면서 괴수군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및 자살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책임이 있는자들은 모두 엄 격히 처벌을 주도록 해마다 벌어 지는 생추행까지 하는 등극한 괴수들이 일어난다고는 각종 투쟁사건들을 다 접자 면 끝이없다. 싸움대로 썩은 괴수의 이런 실태가 날마다 드러내면서 남조선 각계는 걱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는 괴수들을 비롯하여 각종 투쟁사건에서는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의 책임을 구리와 가혹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축수, 은폐하는 괴수군부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호전적투쟁과 부실한 판리로 폭행과 무력투쟁은 주장 시키 괴수군부 장관인인연현 현 청와대보실장 김관진영도 를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세 정지민주련합 대변인 은 28사단은 전체 민중의 《관심사단》이 되었다고 개탄하

행을 강행하였다. 평양인민들은 미제에 대한 불 애오르는 중요성을 안고 반미항 전에 떨쳐나섰다. 《서면》호를 격렬히 위한 총공격을 개시되 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중요 한비인인 김은수선생님께서 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일 련의 평양인민들의 투쟁의 앞장 에 서시였다. 침략선 《서면》호 가 두루뭉실해 정박하고있을 때 김은수선생님께서는 마을사람 들을 모으시고 집결에 이르는 바 출을 묘사 강건히 공수성과 만 침략사이에 경계가 건너지르 고 벌을 굴리면서 침략선의 앞길을 가로막아놓으시였다. 김은수선생님께서는 화공기술 로 군민을 반침략투쟁으로 힘있 게 불러들이시였다. 김은수선생님께서는 《서면》호 가 양도되는데 기여하여 대 로와 총을 쏘이대면서 살인, 락 략행위를 강행한다는 소식을 듣 시고는 곧 마을사람들을 이끄 시고 평양성에 들어가시였다. 그 리고 나무뿔을 가득 실은 매생 이들을 번쩍거리게 벌을 질러 《서면》호쪽으로 내려보내도록 하시 었다. 치열한 화공전은 드디어 9월초에 성공하였다. 화약의 폭발과 함께 황포무도한 미제침 략자들은 저들의 침략목적들을 이루지 못하고 대동강에 영영 수장되고말았다. 김은수선생님의 화공기술과 평양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에 하 여 미국의 침략무리들은 조선 에서 처음으로 수차례러운 참패 를 당하였다. 《서면》호의 격침은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에서 이룩한 첫 승 리로 되었다.

가혹행위=자살이라는 갈기식 이 성립되고있 는 행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 언론은 남조선피도군을 《죽음의 상징》으로까지 표현하 였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에서는 피도군피도현상이 날로 더 욱 우세해지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괴수군부장 장관 한민규와 같은 전쟁미치광이들은 《웅성》이, 《전쟁불사》하고 특별법이 날 려면서 피도군을 동족들의 자 남개로 더욱 사납게 길들이려고 갈망하고있다. 하지만 풍용이구 불에 의해서 유지되고 살인과 폭행이 만무하는 미국의 식민주 의공군, 극도로 락하고 부패 하 기 짝이 없는 이런 오합지졸 의 무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떠날 말인가. 그야말로 가 소로운 추대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호전평등은 탈남에 개 짓어대듯이 허세를 부리기보다 는 썩음대로 썩은 괴수군부의 현실내 타 들어키보려는것이 좋을것 이다. **본사기자 김 현 철**